행복한 책 읽기

이청준 '눈길'
(열림원 刊)

소설집 '눈길'은 고인이 되신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이다. '눈길'에는 저자의 어머니가 한없는 눈물을 뿌리면서 자식을 대처로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어머니는 염원한다.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눈이 내린 산길을 걸어 장터 차부까지 배웅하며 돌아오는 어머니의 길. 어머니는 나란히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본다. 아들의 발자국을 위안 삼아 집으로 오면서 하염없이 운다. 자식을 타향으로만 떠나보내도 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하다.

짧은 소설 '빗새 이야기' 속, 주인공의 형은 어릴 적에 집을 나갔다. 그 형이 어느 낯선 곳을 헤매고 다닐까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래서 텃밭 가에 동백나무를 심는다. "빗새가 의지 삼기 좋은 그 넓은 나뭇잎과 가지들을 염두에 두고서" 나무 주변에 새 모이를 뿌려주곤 한다. "어느 놈이나 밤을 새고는 모이를 쪼고 날아갔다."

내 자식아, 내 자식아…

"어머니가 그 텃밭 가 동백나무에 쏟아온 관심과 정성 역시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로 그 빗새에 대한 측은한 마음에서인 것이 틀림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집 앞 텃밭 한쪽 가에 어린 동백나무 한 그루를 옮겨다 심어놓고 말없는 정성을 다해오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추운 겨울철에도 그 동백에 쏟는 당신의 정성으로 누구보다 간절히 봄을 기다렸고, 누구보다 일찍 그 동백나무의 봄을 맞아 반겼다.(중략) 어머니가 거기 나무를 가꾸는 것은 빗새의 의지를 마음에 두고서였던 게 분명했다."

빗새란 어떤 새일까. 빗새는 제 둥지 하나 못 지닌 가여운 새다. "비-비-"하고 울고, "가엾게 찬비를 못 피해" 울고 다니는 서럽기 짝이 없는 새다. 어머니는 자식을 그리며 동백나무에 온갖 정성을 심는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다림으로 측은한 빗새를 마음에 담는다.

잔인한 봄, 찬비가 내린다. 비바람이 친다. 빗새는 어느 동백나무 아래 몸을 숨기고 '비- 비-' 하고 울고 있을까. 그 울음을 머금은 동백나무가 바로 빗새가 깃들고 싶은 어머니이거나 가족의 품이었음을 나는 새삼 깨닫는다.

사월, 무심한 하늘로 날아간 수많은 영혼들이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서럽게 울고 다닐 것 같다. 찬비를 피하지 못하고 모이를 쪼지도 못하는 가여운 영혼들이 새가 되어 제 부모가 사는 곳의 숲으로 날아들 것인가. 빗새로 환생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천지간에서 바닷속까지… 참혹한 눈물바다가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아까운 영혼들을 가슴에 묻고 그들을 기린다.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눈길'의 어머니는 대처로 자식을 떠나보낼 때도 서럽고 부끄러워 아침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5월은 푸르구나 … 미술관 세상~

'2014 Museum Festival-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광주·전남 13개 사립미술관 전시·교육·체험프로 마련

5월 한 달 광주·전남 13개 사립미술관이 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는 전국 규모의 예술체험 축제인 '2014 Museum Festival-예술체험 그리고 놀이'(이하 뮤지엄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9회째를 맞는 뮤지엄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관 축제로, 올해는 전국 65개 사립미술관들이 참여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13개 미술관이 함께한다.

국윤미술관은 5월30일까지 그룹새벽을 초대해 회화에서 조각 장르까지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그룹새벽' 초대전을 연다. 또 관람객이 미술에 대한 흥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미술기법을 이용한 평면, 입체 작품을 표현해보는 예술 체험프로그램 '가족'을 5월10~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에 운영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우리들의 이상한 놀이세상-Playing in Wonderland'전(6월30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전시와 함께 5월3~31일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에 '자연과 함께하는 에꼴라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난 1년간 새 단장에 들어갔던 **우제길미술관**에서는 재개관 전시 '봄빛에 날다'와 함께 추상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연 속 소리들을 음악 악보로 만들어 연주해보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봄빛의 왈츠'가 5월31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오후 1~3시에 열린다.

은암미술관은 '오월의 매화'전(5월10~15일)과 '스타일을 읽다-택배왔어요!'전(5월16~25일)을 연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을 재해석해 표현해보는 '똑똑똑, 나를 두드리다' 프로그램(5월17~25일 수, 금요일 오후 2~6시)이 진행된다.

의재미술관은 5월7, 14, 21일 오전 10~12시에 '무등산 춘설차 만들기-다례(茶禮)와 차(茶)' 강의를 진행하고, 직접 녹차를 채취해 차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대나무 축제 미디어 아트'전과 함께 미디어 전시를 몸으로 체험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체험전-호기심을 키우는 자연놀이'가 매주 금, 토요일 오후 2~4시 진행되고, 화순 **다산미술관**에서는 지역작가 발굴 전시인 '자연경(自然景) 이정래'전과 함께 한지를 이용해 지장공예기법으로 소품을 제작해보는 '지장공예'가 5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에 열린다.

고흥 **남포미술관**에서는 '내면의 풍경'전과 함께 5월10~2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지판화로 나만의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보는 '내가 만드는 풍경' 프로그램이 열리고, 고흥 **도화헌미술관**에서는 '정경화 한국화'전과 '조수경드로잉'전, 오방색으로 민족 정신을 배우는 '자연을 갖고 놀다'(매주 목, 토 오전 10~12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암 **아천미술관**은 '산길들길 그곳에 있다'전과 함께 체험프로그램 '잠깐 지금 작업 중! 미술관그림 따라 그리기'(격주 목요일 오후 2~4시30분)를 진행하고, 보성 **우종미술관**은 '숲-거닐다, 노닐다'전과 함께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Ego Flower Project, 너도 꽃'(5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평 **잠월미술관**에서는 '바람소리'전과 함께 부채를 제작해보는 '바람을 담은 부채'(5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프로그램이, 진도 **장전미술관**에서는 '작은 그림 이야기'전과 함께 '조약돌의 변신-채색하고 꾸미기'(5월31일 매주 토,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프로그램이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난해 국윤미술관에서 열린 뮤지엄 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

■광주·전남 사립미술관 '뮤지엄 페스티벌'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지역	미술관	전시	체험프로그램	일시
광주	국윤미술관 (062-232-7335)	그룹새벽전	가족	5.10~5.31 매주 토 오전 10~12시
	무등현대미술관 (062-223-6677)	우리들의 이상한 놀이세상 Playing in Wonderland	자연과 함께하는 에꼴라주	5.3~5.31 매주 토 오후 1~4시
	우제길미술관 (062-224-6601)	개관전시	봄빛의 왈츠	5.1~5.31 매주 화~일 오후 1~3시
	은암미술관 (062-231-5299)	스타일을 읽다 -택배왔어요!	똑똑똑, 나를 두드리다	5.17~5.25 수·금 오후 2~6시
	의재미술관 (062-222-3040)	문자향서권기	무등산 춘설차 만들기 -다례(茶禮)와 차(茶)강의	5.7, 5.14, 5.21 오전 10~12시
전남	남포미술관 (061-832-0003)	내면의 풍경	내가 만드는 풍경	5.10~5.24 매주 토 오전 10시30분~12시
	다산미술관 (061-371-3443)	지역작가발굴기획전 '자연경 -이정래'	지장공계	5.1~5.31 매주 토 오전 10~12시
	대담미술관 (061-381-0082)	대나무 축제 미디어 아트전	인터렉티브 미디어 체험전 -호기심을 키우는 자연놀이	5.1~5.31 매주 금·토 오후 2~4시
	도화헌미술관 (061-832-1333)	정경화 한국화전 조수경 드로잉전	자연을 갖고 놀다	5.1~5.31 매주 목·토 오전 10~12시
	아천미술관 (061-472-9220)	산길들길 그곳에 있다	"잠깐 지금 작업 중!" 미술관그림 따라 그리기	5.1~5.31 격주 목 오후 2~4시30분
	우종미술관 (061-804-1092)	숲-거닐다, 노닐다	Ego Flower Project, 너도 꽃!	5.1~5.23 매주 목·금 오전 10시30분~12시
	잠월미술관 (070-8872-6718)	김광옥·박수만 기획전 '바람소리'	정시연계교육프로그램 -바람을 담은 부채	5.1~5.24 매주 토 오후 2~4시
	장전미술관 (061-543-0777)	작은 그림 이야기	"조약돌의 변신" 채색하고 꾸미기	5.1~5.31 매주 토·일 오전 10시~오후 4시

화려한 무대효과 '캐니멀2' 어린이 뮤지컬 맞아?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5월2~11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5월2~11일 어린이 뮤지컬 '캐니멀2'가 공연된다. 오전 11시, 오후 2시.

'캐니멀'은 캔 모양을 한 강아지, 고양이, 부엉이, 스컹크 등 귀여운 동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으로, EBS와 주니어 네이버에서 방영될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캐니멀2'는 '미미구출대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줄거리는 주인공인 호기심 많은 6살 꼬마 대니와 함께 살고 있는 캐니멀 아토, 니아, 울리가 친구 미미를 되찾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간 어린이 공연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무대 장치들이 사용된다. 특히 영상을 사용한 무대장치와 캐릭터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무대 효과들은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료는 전석 2만5000원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된 어린이부터 관람가능하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방송, 창작곡 경연대회 개최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5월 7~16일 접수

국악방송(사장 채치성)이 창작 국악곡 오디션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개최한다.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음악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국악창작곡 개발 경연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경연에는 개인, 단체 모두 참가 가능하며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 악기 등 한국음악정서가 반영된 작품을 모집하되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대상에게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4000만원이다.

오는 5월7일부터 1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으며 오는 8월17일 국립극장 예악당에서 본선 대회를 치른다. 올해부터 1, 2차 예선은 물론 본선까지 모두 실연심사제를 도입, 참신한 국악명곡, 국악히트곡이 탄생할 여건을 마련했다. 또 국립국악원과 MOU를 협조관계도 구축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fm.co.kr)와 21C 한국음악프로젝트(www.kmp21.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2-300-99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머니-기원'

깊고 깊다, 모정 … 서정

양림미술관 정경래 초대전

한지 위에 혼합재료로 그려진 한 작품이 유난히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름진 두 손을 모으고,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작품 속 그 어머니는 분명 자식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다.

양림미술관은 5월11일까지 한국화가 정경래씨를 초대해 '나의 사색'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정씨가 4년 만에 여는 열한 번째 개인전이다.

정씨 작품은 색채가 유난히도 깊다. 작가는 천이나 종이 위에 물감을 엷게 여러번 겹쳐 칠하면서 깊은 색을 만들어냈다.

작품 안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물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엷고 맑은 층이 설동백을 피우고,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또 남도의 서정이 그 색채 안에서 새롭게 피어난다.

특히 작가는 작품 안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 안료로 재현할 수 없었던 시각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다. 작품이 LED 조명을 끌어들이면서 그 이상의 감동을 준다.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한 정씨는 서울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675-700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